

#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박 걸 순\*

1. 머리말
2. 가계와 성품
3. '全北 第一 郡守'의 善政
4. 자결 순국
5. 자결 순국의 영향
6. 맺음말

## 1. 머리말

홍범식(1871~1910)은 1910년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자결 순국한 애국열사이다. 일제의 침략과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수십 명의 우국지사가 자결 순국하였지만<sup>1)</sup>, 홍범식은 고위 관인 신분인 군수로서 가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p.171(『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2002, 동방미디어, p.415). 여기에는 29인의 자결 순국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傳聞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즉, 白某, 李某 등 인물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宋道淳처럼 자결하지 않은 인물도 명단에 들어있다. 송도순은 1918년 사망하였다(『恩津宋氏 同春堂文正公派譜』 및 『恩津宋氏文獻錄』 卷五).

장 먼저 자결을 결행함으로써 모든 명단의 수위에 기록되어 있고, 항일투쟁의 기폭제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자결 순국은 제2차 영일동맹에 항거하여 자결한 駐英公使署理 李漢應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 많은 사람들이 飮毒·斷食·自剄·自縊·投水·割腹 등의 방법으로 자결 순국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絶命詩나 遺詩, 遺疏 또는 遺言과 遺書를 남겼다.<sup>2)</sup>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자결 순국 투쟁은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왔다. 따라서 자결 순국한 열사 가운데 黃玆처럼 저명한 저술을 남겼거나 金道鉉이나 李晩燾처럼 의병항쟁 등 민족운동에 참가하였거나, 또는 문중이나 지역에서 현창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는 인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홍범식은 순국을 기점으로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의 표상이 되었다. 것처럼 자결 순국의 장엄한 순간이 생생한 기록으로 남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일제 강점기 그는 해마다 맞이하는 國恥日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와 그 기관지, 해외 동포사회에서 발행되던 신문을 통해 기억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적어도 그는 1951년 12월, 서울신문이 순국선열 유가족원호사업 대상 134명 중 1인으로 선정할 때까지만 해도 당당히 순국선열로 평가되었다.<sup>3)</sup>

그러나 홍범식에 대한 개인 연구는 전무하다. 고작해야 괴산의 항일운동을 논 의하거나 자결 순국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생애 검토와<sup>4)</sup>, 그의 아들인 홍명희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거론되는 정도이다.<sup>5)</sup> 그 까닭은 자료의 부족에도 기인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의 아들 홍명희의 율복과 북한

2) 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40~51 및 오영섭, 『한말 순국·의열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4),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273~280.

3) 『서울신문』 1951년 12월 9일자, 「사회부, 순국선열 유가족에게 생활비 지급」.

4) 박결순,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괴산문화원, 1996: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순절한 금산군수 홍범식」, 『월간 독립기념관』 2000년 8월호.

5)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9: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 2004.

정권에서 부수상을 역임한 '붉은 꼬리표' 때문이다. 남북 분단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경색될수록 그는 아들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학술적 논의에서도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는 이후 50년간 의도적으로 망각된 인물이다. 2000년 8월에 이르러서야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으로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아들로 인한 緣坐로부터 벗어나 역사적으로 복권된 것이다. 만사지탄이 있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본고는 홍범식의 생애와 자결 순국 과정, 그리고 그의 자결 순국의 유훈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자결 순국이 후손이나 다른 독립운동가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자결 순국 투쟁이 개인적 차원의 봉건적, 소극적 투쟁이 아니라 한민족의 각성을 촉구한 적극적, 효율적 투쟁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2. 가계와 성품

홍범식은 1871년(고종 8) 7월 23일, 현재의 충북 괴산군 괴산을 동부리 450-1번지에서 豊山人 洪承穆과 海平 尹氏<sup>6)</sup>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聖訪, 호는 一阮이라 하였다. 그의 집안은 노론 명문이었는데, 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之慶(1세) - 侃(2세) - 侑(3세) - 演(4세) - 龜(5세) - 倣(6세) - 繼宗(7세) - 禹甸(8세) - 脩(9세) - 履祥(10세) - 霽(11세) - 柱元(12세) - 萬衡(13세) - 重模(14세) - 允輔(15세) - 維漢(16세) - 羲宅(17세) - 必榮(18세) - 定周(19세) - 祐吉(20세) - 承穆(21세) - 範植(22세) - 命憲(23세) - 起文(24세)<sup>7)</sup>

6) 홍범식의 외조부는 尹璋烈인데, 자료에 나오지 않아 관직 등은 알 수 없다(『蔭官世譜』 - <http://yoksa.aks.ac.kr/>).

7) 豊山洪氏秋巒公宗門會, 『宗門世系圖』, 1987 참조. 굵은 글자는 派祖이다.

그의 가계는 司正公系(倣, 6세) - 文敬公系(履祥, 10세) - 秋巒公派(震, 11세)로 계파가 속하였는데, 12세인 주원으로부터 계파를 나누기도 한다. 시조는 고려 고종 때 國學 直學을 지낸 洪之慶으로 대대로 顯人이 잇달았으나, 증시조이자 그의 12세조인 慕堂 洪履祥 대에 이르러 조선의 '望族'으로 성장하였다.<sup>8)</sup> 홍이상은 司馬試, 庭試, 殿試에서 모두 장원급제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한 학자로서 본격적인 학문을 펴지는 못하였으나, 훌륭한 시를 많이 남긴 조선 중기 사대부의 전형적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평가된다.<sup>9)</sup>

金澤榮이 지은 『洪範植傳』에는 홍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2세조인 대사헌 履祥은 선조조의 명신이었는데, 돈후하고 경술을 좋아하였다. 당론이 분쟁하던 시기를 당하여 휩쓸리지 않고 올곧게 자기중심을 지키고 두루 잘 지냈으며 추종하지 않았다. 그 후 자손들은 대대로 그 가르침을 좇아 비록 노론의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자기 당류에 따르기를 거부하여 다른 당류로부터 질시를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부인 우길, 부친인 승목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 더욱 사대부 가문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sup>10)</sup>

추만공파의 시조인 洪震은 생원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가 다시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판과 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12세 홍주원은 선조의 딸 貞明公主와 혼인, 부마가 되어 永安尉에 봉해지고 文懿公의 시호를 받았다. 이후 만형은 교리, 중모는 군수, 윤보는 목사, 유한은 진

8) 『日省錄』, 정조 11년(1718) 10월 14일(무신). 홍이상의 가문을 '望族'이라 한 것은 정조가 도승지 沈豐之를 소견하였을 때 한 말이다.

9) 尹浩鎭, 『慕堂 洪履祥의 삶과 詩世界』, 『漢文學報』 제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참조. 그를 배향하는 荷江書院이 충부 충주시 금가면 하당리에 있다.

10)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 其十二世祖大司憲履祥 宣祖時名臣也 敦厚好經術 當黨論分爭之日 特立不隨 周而不比 其後子孫世守其訓 雖爲老論名家 不肯從其類 偏嫉他黨...” 한편 김택영은 『韓史繫』의 홍이상의 죽음 부분에서도 “... 當黨論分爭之日 皜然無所染”(卷三, 光海主 乙卯年條)라 하였다.

사, 희택은 침정을 지냈다. 그러나 필영은 실직이 없이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정주는 同敦寧을 지내고 우상에 증직되었다.<sup>11)</sup>

홍범식 가문이 다시 명문이 되어 영달의 길에 오른 것은 조부 우길이 문과에 급제하여 宦路에 나서면서부터이다. 우길은 1850년(철종 1) 경술 증광시에 갑과 1위로 급제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의 고령이었으나, 당당히 장원급제한 것이었다. 이후 그는 평안감사, 판의금부사, 홍문관 제학, 사헌부 대사헌, 한성부 판윤, 공조판서, 의정부 좌찬성, 함경도관찰사, 예문관 제학,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 요직을 지냈고 죽은 뒤 孝文公이란 시호도 받았다. 그런데 『國朝文科榜目』에는 그의 거주지가 청주로 되어 있는데<sup>12)</sup>, 그의 대에 이르러서는 풍산 홍씨들이 괴산에 자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우길의 뒤를 이어 승목도 1875년(고종 12) 을해 별시에 병과 29위로 급제하였다. 본래 승목의 생부는 16세 紀漢의 고손으로 都正을 지내고 제학에 증직된 祐弼이었으나, 족부 우길의 양자로 출계한 것이다. 그는 과거 급제 이후 修撰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사간, 대사성, 궁내부 특진관, 장례원 소경, 봉상시 제조, 『文獻備考』 교정 당상, 이조와 병조 참의 등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1906년 11월부터 중추원 찬의(칙임관 2등)를 지냈고, 경술국치 때까지 여러 친일 성향 단체의 임원을 지냈다. 더구나 자신에게 지극하게 효도를 다한 아들 범식이 자결 순국한 직후부터 1921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내고 일본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것은 명백하게 민족적 과오를 범한 것에는 틀림없다.<sup>13)</sup>

11) 豊山洪氏秋巒公宗門會, 『宗門世系圖』.

12) 『國朝文科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13) 홍승목은 지금까지의 친일파 선정 논의에서 조선총독부 찬의를 지낸 경력으로 인하여 예외 없이 친일파로 규정되어 왔고, 2006년 9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2006, pp.403~409). 「결정이유서」는 그가 '일제강점기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 제1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로 재직,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1921년 한국병합기념장과 1920년 훈4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 대동학회 회장·공자교회 부회장·

그의 경력을 ‘형식적 직함’이라거나, 홍범식 순국 이후 집안이 몰락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의 친일행위 여부를 재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14)</sup> 그러나 홍명희가 괴산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직후인 1919년 5월 5일 동부리의 고택을 팔고 제월리 묘막으로 이사한 것은 사실이나<sup>15)</sup>, 홍승목은 1918년 제월리 일대에 방대한 부동산을 매입해 두었음이 확인된다.<sup>16)</sup> 즉, 홍범식의 순국 이후 그의 집안이 몰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홍승목의 행적 가운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내지 못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가 중추원 의관으로 재임하던 1907년 ‘所謂 義兵이라고 하는 匪徒들을 鎮壓하기 위해 鎮衛隊를 복설하자는 建議書’를 중추원 의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이다.<sup>17)</sup> 그의 건의안은 중추원 의장 徐正淳이 심의 가결하여 ‘仰佈’하였고,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査照裁處’하도록 요구되었다.<sup>18)</sup> 물론 진위대 해산은 일제의 강제에 의해 시행된 것인 만큼 그의 건의로 복설될 형편은 아니었다.

이는 구한말 의병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족운동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가 진위대 복설을 건의한 1907년 10월

체국실업회 회장 등 친일 성향 단체에서의 활동 사실 등)로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헌 직원록』에 의하면 그는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 직할기구인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었고, 1911년부터 연수당 1000을 받았으며, 1914년에는 공훈 등급 정5를 받았다가, 1919년에는 종4로 승훈이 되었고, 1921년에는 종4 훈4의 공훈을 부여받는 등 죽기 직전까지 친일적 행적을 계속하였다.

14)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21쪽 및 『벽초 홍명희 평전』, p.37.

15) 『除籍簿』(괴산읍사무소).

16)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고로 귀속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부동산 목록에는 괴산을 제월리의 홍승목 소유 임야 157필지, 51만 7천여㎡도 들어 있다. 이는 공시지가로는 14억 원이나 시가로는 48억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이 토지는 홍승목이 1918년에 매입한 것이니, 그의 친일 활동기간에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 한편 제월리 365번지 일대에는 1920년 3월 30일자로 홍명희 소유로 된 토지도 아직 남아 있다(『토지대장』, 괴산군). 홍승목 소유의 부동산은 2010년 2월 5일 제33차 친일재산 국고 귀속 결정 회의에서 국고 귀속이 결정되었고, 5월 7일 국고로 귀속되어 국가보훈처가 소유권자로 되었다(<http://www.icjcp.go.kr/>).

17) 『中樞院來文』(奎 17788) 제9책(1907. 1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8) 『中樞院來文』(奎 17788) 제9책(1907. 10. 24), 『照會 第七號』,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은 일제의 군대 강제 해산 조치 직후 이에 반발하여 후기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투쟁이 격화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친일 내각을 이끌던 이완용은 長谷川好道에게 일본 군대를 파병하여 의병을 '토벌'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2개 사단을 증파하려 하였으나, 일본 주재 각국 공사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sup>19)</sup> 홍승목이 의병을 '匪徒'라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친일 내각의 관변적 시각을 대변하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진위대 복설을 주장한 것은 적극적 친일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그의 행적 평가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범식은 홍승목의 적자이고, 그의 동생 洪用植, 洪台植, 洪甲植은 계모인 평산 신씨 소생으로 이복동생들이다.<sup>20)</sup> 홍범식은 본처 은진 송씨와 사이에 홍명희를 낳았으나, 그녀가 일찍 죽자, 趙鍾恒의 딸 趙環植을 후처로 맞이하였다.<sup>21)</sup>

홍범식은 가풍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는 평소 겸손하고 부모에 대한 예가 지극하였으며, 본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어려서부터 장성한 후까지 입에서 시가를 외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sup>22)</sup>

홍범식의 성품에 대하여는 정인보의 평가가 상세하다. 그가 홍범식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홍명희와의 절친한 인간관계 때문이었다. 그의 문집인 『舊園文錄』에 기술된 「錦山郡守洪公事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은 타고 나기를 인자하여 어머니가 자식 어루만지듯 하여 아낙네 같았  
 건만, 의롭지 못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사

19) 黃玿,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20) 「除籍簿」(괴산읍사무소).

21) 「除籍簿」에는 홍명희의 모친이 漢陽 趙氏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홍명희의 생모 은진 송씨는 군수를 지낸 宋殷老의 딸로서(『蔭官世譜』—<http://yoksa.aks.ac.kr/>) 홍명희가 세살 때 죽었으며(홍명희, 「자서전」, 『삼천리』 1929년 6월호), 홍범식 묘비에는 「贈淑夫人恩津宋氏祔」라고 되어 있고, 한양 조씨 묘는 앞산 제일봉에 따로 있다. 한양 조씨는 1918년 10월 趙環植으로 명명하였다.

22)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모하는 마음이 독실하였다.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겨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1893년) 죽도록 애통해 하고 사모함이 처음과 끝이 같았다. 침사공(홍승목:필자)을 곁에서 모실 때 무엇이건 그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간혹 일이 있어 슬그머니 자기의 주장을 펴다가도 공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신은 민망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여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가 그치기를 여러 번하여 침사공이 가끔 감동하여 그 말에 따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일가붙이를 구휼하였으며, 벼슬에 있는 동안 기록할 만한 치적이 많으나 그에 있어서는 하찮은 것이라서 모두 다 기록하지 않는다.”<sup>23)</sup>

홍범식의 성품에 대한 기록은 대개 비슷하다. 박은식은 그를 ‘孝悌를 두터이 행하고 志節을 지키기에 힘썼다’고 하였으며<sup>24)</sup>, 『騎驢隨筆』에는 그가 모친 윤씨가 죽었을 때 ‘哀毀踰制’ 하였음과, 그의 충절을 금산과 연고가 있는 야은 길재, 중봉 조현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sup>25)</sup> 한편 김택영은 그가 ‘효성이 지극하였고, 사람을 대함에 성품이 두터웠다’고 기술하였다.<sup>26)</sup>

### 3. ‘全北 第一 郡守’의 善政

홍범식은 2살 때인 1872년, 함경도관찰사로 부임<sup>27)</sup>한 할아버지를 따라 함산 관아로 갔다가 천연두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이 있었다.<sup>28)</sup>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한 그는 학업에 매진하였다.

23) 鄭寅普, 『舊園文錄』 一, 『錦山郡守洪公事狀』 참조.

24)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71쪽(『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박은식은 홍범식의 순절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그의 아들 홍명희는 才士로서 자신과도 잘 아는 사이임을 강조하였다.

25)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26) 金澤榮, 『洪範植傳』, 『韶澗堂文集』 卷十.

27) 홍우길은 1871년 10월 21일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는데(『高宗實錄』 8권, 8년 10월 21일), 1873년 8월 陵役이 한창이라 특별히 임기가 연장되었다(『高宗實錄』 10권, 10년 8월 10일).

28) 宋相燾, 『騎驢隨筆』.

그의 나이 18세이던 1888년 3월, 그는 무자 식년시(생원진사시)에 진사 3등 232위로 급제하였다.<sup>29)</sup> 금위영에서 치러진 이 시험의 과목은 一詩였으며 합격률은 7.66%였는데, 진사는 324명을 뽑았으니 그는 중하위의 성적으로 급제하였던 것이다.<sup>30)</sup> 이해 7월에 장남 명희를 낳았으니 그에게는 경사가 겹친 것이었다.

홍범식은 1902년 내부 주사(관임관 6등)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sup>31)</sup> 그는 곧 惠民院 參書官(주임관 6등)으로 승임되었다.<sup>32)</sup> 혜민원은 1901년 10월 16일 勅令 第18號로 惠民院官制로서 裁可된 빈민구휼 기관이었다.<sup>33)</sup> 그러나 1904년 초 의정부의 官院 폐지 조치 때 혁파되어 내부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는 한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sup>34)</sup>

1906년 1월 19일 德陵, 安陵, 智陵, 淑陵, 純陵, 定陵, 和陵의 비각을 營建하고 表石을 세울 때 監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는데, 6품이었던 그는 加資되어<sup>35)</sup> 이 날짜로 정3품으로 승관하였다.<sup>36)</sup>

그런데 혜민원 참서관 재직 이후 그가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1905년 8월 괴산군수 閔泳殷이 군청 건물을 수리하여 교실로 만들고 私立 始安學校를 개설하자, 홍범식은 贊成長이자 前 參書 명의로 보조금 백 원을 낸 기록이 확인된다.<sup>37)</sup> 즉, 이때 그가 현직명이 아니라 전직 참서관으로 표현된 것은 관직에서 일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29) CD-ROM 『司馬榜目』(韓國精神文化研究院). 시험은 1888년 2월 19일에 치러졌고, 급제자 발표는 동년 3월 27일에 하였다.

3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의 「과거 및 취재」 참조.

31) 『官報』 제2268호, 광무 6년(1902) 8월 2일자.

32) 『日省錄』, 1902년 9월 26일자 및 『皇城新聞』 1902년 11월 1일자.

33) 『고종시대사』 5집, 1901년 10월 9일, 16일.

34) 『고종시대사』 6집, 1904년 1월 11일.

35) 『高宗實錄』 47권, 1906년 1월 19일.

36) 『官報』 號外 2 광무 10년(1906) 1월 21일자.

37) 『皇城新聞』 1905년 9월 4일, 23일자. 사립시안학교는 속성과와 소학과로 나누었는데, 속성과는 20세 이상, 소학과는 8세 이상을 입학 자격으로 하였으며, 생도가 8, 9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초 찬성장은 서울에 살고 있던 鄭永澤에게 요청하였으나, 홍범식이 찬성장이 되었다.

홍범식은 1907년 8월 19일 주임관 4등의 전라북도 泰仁郡守에 임명되었다.<sup>38)</sup> 그런데 당시는 군대해산 직후라 전국적으로 의병이 크게 일어났고, 전라지역은 의병 활동이 더욱 왕성한 곳이었다. 따라서 군수들은 현지 부임을 꺼리는 형편이었는데, 이 해 12월에는 전국에 비어 있는 군수 자리가 80여 곳이나 될 정도였다.<sup>39)</sup> 그 까닭은 군수가 발령이 나더라도 부임하지 않고 의병의 활동 등 사태를 관망하다가 사세가 부득이하면 辭免을 청원하고 관직을 포기하여 ‘曠窠’, ‘窠闕’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내부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우려하여 시급히 군수를 서임하려고 하였고, 한편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 군수를 희망하는 자들의 구관 행위가 있었다. 당시의 상황은 군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에 군수 태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황성신문』의 논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물론 군수의 역할이란 의병을 진압하고 지방을 안정케 하는 ‘暴徒 鎮服’과 ‘지방의 憂亂을 鎮撫’하는 것이었다.<sup>40)</sup> 전라북도 관찰사는 내부에 관내 군수의 근태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홍범식도 상경하였다가 기한 내에 귀임하지 않은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sup>41)</sup>

홍범식이 태인 군수로 임명될 당시는 지방 관리들의 탐학이 성행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을사오조약 강제와 군대해산 조치에 분개하여 일어난 의병 항쟁이 계속되었고, 태인은 특히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일본군 수비대를 출동시켜 의병을 공격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홍범식은 이에 비분강개하여 선비로서 관리가 되어 어려운 때라 하여 회

38) 『官報』 제3851호, 융희 원년(1907) 8월 22일자.

39) 그가 태인 군수에 임명되었을 당시, 의병 활동으로 말미암아 신임 군수가 부임을 기피함은 물론, 현직 군수로서 관직을 버리고 떠난 자도 수십 인에 달하였는데, 강원도의 경우, 군수들이 달아나 비어 있는 군이 19개 군에 달하는 실정이었다(黃玿, 『梅泉野錄』, p.428, p.436).

40) 『皇城新聞』 1907년 12월 13일자 논설 「郡守 敍任의 說」.

41) 예컨대 1907년 11월 전라북도 관찰사는 관내 4개 군수의 근태를 내부에 보고한 바, 이때 홍범식은 부모를 뵙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기한이 넘도록 귀임하지 않은 것이 보고되어 내부에서 그에게 임지로 귀임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다(『皇城新聞』 1907년 12월 13일자 잡보의 「促送郡守」).

피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였다.<sup>42)</sup> 이에 그는 한필의 말에 올라 동자 1명만을 데리고 촌락을 두루 돌아다니며 일본인 수비대장을 만나 그 부하들이 함부로 백성을 죽이지 않도록 설득하였다. 이로 인해 태인 사람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고, 다른 지방 사람으로서 무고하게 붙잡힌 사람들도 많이 구하였다.

그는 평소에 받는 봉급 외에는 단 1전도 백성들에게 거두지 않았으며 荒政이나 수리사업 등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이에 감복한 태인 군민들은 군내 38坊에 木碑를 세워 그의 덕을 칭송하였는데, 근방의 고부와 정읍군 등지에도 그를 기리는 목비를 세운 곳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시켜 경내의 목비를 거둬 오게 하여 이를 불태웠다.<sup>43)</sup>

홍범식이 태인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베푼 선정은 이를 칭송하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에 낸 광고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가 부임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08년 6월 20일, 태인군 산외면에 거주하는 李喜鳳·宋象衍·李玟魯 등은 홍범식 군수를 칭송하는 광고를 『황성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광고의 내용은 김택영의 「洪範植傳」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그들은 먼저 홍범식이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으나 정령을 공평하게 펴기에 힘써 크고 작은 폐단을 없애고 오로지 밤낮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태안군의 산내면과 산외면은 험준한 지역이라 1907년 겨울이래 의병이 크게 일어났는데 홍범식의 군민에 대한 무마와 일본 기병대와의 교섭으로 10여 명의 피체자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다른 면 백성들의 생명도 구하였다고 칭송하였다. 따라서 '이런 군수는 태인군이 생긴 이래 처음' 이라고 극찬하며, 그를 칭송하는 '滿街木碑는 猶屬例事요 立祠繡像은 難忘永世'라며 지구상의 동포들은 이를 잘 알아 달라고 광고하였던 것이다.<sup>44)</sup>

42) 동학혁명 당시 조정에서 청국에 보낸 문서에는 "... 전라도 관할의 태인, 고부현 등은 백성의 습속이 사나워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 일컬어졌다 ... ( ... 全羅道所轄泰仁古阜等縣 民習凶悍 素稱難治 ... )"고 하여 이전부터 태인이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을 알려준다(黃玿, 『梅泉野錄』, 1955, p.132).

43)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44) 『皇城新聞』 1908년 6월 20일자.

이로써 보면 그가 적극적으로 의병을 지원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는 의병 진압을 위해 출동한 일본군이 무고한 백성들을 의병으로 몰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극력 보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이듬해 5월 13일, 태인군 거주 柳鍾奎가 『황성신문』에 낸 광고는 홍범식이 태인 군수를 사임하고 상경하려다가 군민들의 간청으로 포기하였던 적이 있음을 알려준다. 즉, 유종규는 홍범식이 군수로 부임한 지 3년째를 맞아 그의 열성적 노력으로 관내가 편안해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홍 군수가 상경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때 면장과 군민들은 홍범식에게 만일 군수가 백성을 버리고 상경하면 면장들도 모두 돌아갈 것이고 군민들은 살만한 곳을 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하며 만류할 것을 청원하였다. 홍범식은 이 같은 군민들의 소망을 차마 떨치지 못하고 상경하기를 그만두었는데, 유종규는 홍범식에게 '感賀'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광고를 냈던 것이다.<sup>46)</sup> 그가 태인 군수로 재임할 시기의 평기는 '時有全北第一治之頌'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이다.<sup>47)</sup>

홍범식은 태인 군수로 약 2년을 재직한 후 1909년 6월 14일 금산군수로 전임하였다.<sup>48)</sup> 그는 이곳에서도 태인에서와 같이 선정을 베풀기에 힘썼다. 금산의 치소 남쪽에는 예로부터 연병장이 있었으나 오래전에 폐지되어 그곳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수백 두씩 수확하고 또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前政 金字植이 府訓에 의해 모두 국유화 시켜 버렸다. 홍범식이 부임하자 그곳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이 사실을 호소하였다. 홍범식은 사실에 입각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모두 돌려주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sup>49)</sup>

45) 河東郡守 李承斗가 일본군이 행군하는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피해 숨도록 하고, 일본군이 민가에 불을 지르려 하면 울면서 그들을 붙들고 말리다가 화가 난 일본군에 맞아 죽은 사례(黃玆, 『梅泉野錄』, p.479)에서 알 수 있듯이, 군수가 일본군에 맞서 군민을 보호하려 한 것은 목숨을 내건 행동이었다.

46) 『皇城新聞』 1909년 5월 13일자.

47)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48) 『日省錄』 1909년 6월 14일 및 『皇城新聞』 1909년 6월 17일자.

49)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해방 후 1949년에 금산의 지방 유림들이 발의하여 금산읍 중앙지에 세운 홍범식순절비는 현재 태인에 남아 있는 여러 개의 선정비와 함께 그의 선정을 기리는 그곳 사람들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sup>50)</sup>

#### 4. 자결 순국

홍범식은 1905년 을사오조약이 강제 당한 이후 항상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민중정공의 순절을 칭송하곤 하였다.<sup>51)</sup>

그가 금산군수로 재임 중이던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한 쾌거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계기로 한국 병탄 계획을 가속화하였다. 그는 곧 일제가 일진회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병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타깝다. 내가 백리의 땅은 지켜냈으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켜낼 힘이 없구나. 나라가 망한다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깊이 탄식하였다.<sup>52)</sup>

50) ‘郡守洪公範植殉節碑’는 1949년 10월 지방 유림들의 발의로 금산읍 중앙지에 건립된 것이다. 비문은 금산 출신으로 극작가로 활동하던 임희재(任熙宰, 1922~1970)가 지은 것인데, 홍명희의 월북으로 인해 비의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었다. 당시 예산군수 박형재는 홍범식의 순절에 대해 왕명이 없이 군수가 자결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이 순절비는 忠節碑라고도 하였는데, 이후 1976년에 남산으로 옮겼다가 2008년 다시 홍범식 공원으로 옮긴 것인데, 금산군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절비는 남쪽으로 진악산을 등지고 북쪽으로 신흥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금산읍 전경이 내려다보이고, 자신이 최초로 자결을 시도했던 금산객사(금계관) 자리도 보인다. ‘郡守洪公範植殉節址’ 비석은 1993년 7월 홍범식의 순절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조종산 자락에 세웠다가 순절비와 함께 ‘홍범식 공원’으로 이전하였다. ‘홍범식 공원’에는 그의 호를 딴 정자(일완정)가 있다. 한편 그가 태인 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 가운데 현재 3기가 남아 있다. 즉, 전북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감곡면사무소 경내의 ‘洪侯範植恤民善政碑’(1908), 정읍시 산외면 오곡리 야정 노인정 앞의 ‘郡守洪侯範植善政碑’(1909),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披香亭 경내의 ‘郡守洪侯範植愛民善政碑’(1910)가 그것이나, 현지에서조차 이 존재를 잘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51)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p.171(『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52) 金澤榮, 『洪範植傳』, 『韶澗堂文集』 卷十. 김택영은 『韓史纂』에서 그가 일제가 합병하기로 기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직이 封疆이 있으며 적을 능히 방어하지 못하였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탄식하였다고 서술하였다.

홍범식의 자결 순국 과정에 대하여는 정인보의 『담원문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은 홍명희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토대로 그의 자결 순국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장차 국가에 변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의 부자와 친구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쓰고, 한편으로는 미뤄뒀던 일들을 처리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자결 조짐을 눈치 채지 못하였다.<sup>53)</sup>

1910년 8월 29일, 결국 그는 망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가 자결을 결심한 뒤 날이 어스름해지자 재판소 서기 金祉燮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유서를 넣어 단단히 싸서 봉한 상자를 그에게 건넸다. 김지섭이 이를 열어 보려 하자 그는 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김지섭은 군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품에 넣어 집으로 가지고 갔다.

잠시 후 홍범식은 小室에게 어찌 놀러 나가지도 않느냐고 묻고, 그녀를 데리고 고을의 잘 아는 사람<sup>54)</sup> 집으로 가서 그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고는 주인에게 관아의 內舍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실을 잠시 머물도록 폐를 끼쳐야 하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곧 그 집을 떠났다. 이때 使令인 殷成<sup>55)</sup>이 그를 따랐는데, 홍범식이 그 집을 나서서 여느 때 다니지 않던 길로 접어들자 그는 혼잣말로 이 길은 객사로 가는 길인데 왜 군수가 이 길로 갈까라고 하며 이상하게 여겼다.<sup>56)</sup>

객사에 도착한 홍범식은 은성을 문밖에 있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가 임금께 北向四拜를 올리고 나와 아래채에 이르러 비단으로 목을 매어 자결을

53) 홍범식 외손가에 전하는 유서(『두 머느리의계』)의 사본에는 작성일이 7월 23일로 되어 있다. 이는 음력일인데, 이로써 보면 홍범식은 이 유서를 자결하기 이틀 전인 8월 27일에 이미 작성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서의 사본은 머느리가 베껴 쓴 듯 걸장에 '아바님 유서 벗긴 것'이라 되어 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강영주 교수께 감사드린다.

54) 『騎驢隨筆』에는 面長 金漢根의 집이라 되어 있다.

55) 『騎驢隨筆』에는 金恩成이라 되어 있다.

56) 客舍란 고려시대 이래 각 고을에 설치한 것으로 왕명을 받은 사람이 묵던 곳이므로 館舍 또는 客館이라고도 한다. 자료상으로는 1279년(충렬왕 5) 8월부터 지었다고 하나, 조선 시대에는 이곳에 왕을 상징하는 殿牌를 모셔두고 고을 원님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望闕禮를 올리던 곳이다.

시도하였다. 은성이 몰래 들어가 엿보다가 이 광경으로 보고는 놀라 그에게 달려가 얼싸 안으며 울부짖었다. 홍범식은 노하여 은성을 손으로 밀어 제치고 옷자락을 걷어 치며 결연히 나가 버렸다. 이에 은성이 소리쳐 울면서 그의 뒤를 따랐는데, 홍범식은 문밖으로 몇 발자국 나가다가 몸을 돌려 모래를 집어 은성의 얼굴에 뿌렸다. 갑자기 눈에 모래가 들어간 은성이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비비는 사이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은성은 관아로 달려갔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군수가 목을 매 자결하려는 것을 풀어드렸으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니 빨리 햇불을 들고 찾아 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전과 군민 모두가 놀라 군수를 찾아 나섰다.

군수로부터 상자를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온 김지섭은 처음에는 군수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것이라 여겨 의심하지 않았었다. 김지섭이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그 아들에게 주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또한 지섭에게 주는 편지도 있었는데, 홍범식은 이 편지에서 지섭에게 나라가 망하였으니 자신은 자결하면 그만이지만 너는 빨리 관직을 떠나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당부하며,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김지섭이 이 편지를 읽어 보고 깜짝 놀라 관아로 달려가니 군수는 이미 없었다. 어떤 사람의 안내로 홍범식이 소실을 맡긴 집을 찾아가 물어보니 곧바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지섭이 홀로 한숨을 쉬며 골목을 나서 바라다보니 불빛이 군청을 밝히고 한창 술렁거리고 있었다. 지섭이 서둘러 달려가니 은성이 아전과 고을 사람들을 모아 군수를 찾아 나서려는 참이었다. 지섭은 그들과 함께 객사로 가서 군수를 찾아 나섰는데, 문 옆의 밭에 수숫대와 옥수수대가 헤쳐지고 꺾여 마치 사람이 뚫고 들어간 흔적 같아서 모두 의심하며 온 밭을 두루 뒤졌으나 헛일이었다.

이때 갑자기 뒤쪽에서 원님이 여기 계신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달려가 홍범식을 찾아냈으나, 그는 객사 후원의 낮은 소나무 가지에 목매 숨이 끊어진 뒤였다. 나뭇가지가 연약하여 처져서 그의 몸은 땅에 비스

듬히 늘어져 마치 누워 자는 듯 한 모습이였다. 홍범식은 평상시에는 서양 제 검은 모자를 썼는데, 이날은 우리 의관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는 이날 아침 작년에 남에게 빌려 온 매화 분재를 편지와 함께 30리 길을 달려가 돌려주게 하였는데, 심부름꾼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sup>57)</sup>

금산군에서는 아전과 어른들로부터 비롯하여 아래로는 농군, 등짐장수, 아낙네, 어린애 할 것 없이 모두 앞 다투어 나와 울고 또 장례 모실 준비에 분주하였다. 아들 명희가 달려왔을 때 이미 모든 장례 준비가 갖춰진 뒤였다. 그의 염을 마친 뒤 남은 수의용 옷감이 십여 필이 되었는데, 모두들 울며 변변치 못한 것이나마 백성들의 정성으로 모은 것이니 원님 몸 옆에 함께 넣어 주면 여한이 없겠다고 애원하자 모두 관 속에 넣어주었다.

상여가 떠나려 하자 온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올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모두 도로에 나와 울며 곡을 하였다. 상여가 괴산의 선영까지 가려면 3백리나 되는데도 아전과 백성 1백 명이 상여를 따라가 장례를 마치고야 돌아왔다.

당시 장례는 판사 朴瑢台, 군서기 韓昌錫 등이 예를 갖춰 괴산까지 모신 것인데, 장례를 전후하여 賻錢한 관민이 5천명에 이르렀으며, 읍의 아낙인 金春仙과 李緣珠도 부전을 하였다.<sup>58)</sup>

홍범식은 자결 직전 객사의 벽에 '國破君亡 不死何爲'라는 여덟 자의 유서를 남겼다.<sup>59)</sup> 홍범식의 품안에 지니고 있던 유서는 염탐꾼이 뒤져 가져갔지만, 일제는 김지섭에게 부탁한 유서의 존재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지섭은 이 유서들을 잘 숨겨두었다가 명희에게 전해 주었다. 유서는 할머니와 부모로부터 부인과 자제, 며느리와 딸에게 이르기까지 십여 통이나

57) 홍범식의 자결 순국일을 김윤식의 『續陰晴史』(1910년 9월 1일자)를 인용하여 9월 1일로 보는 견해(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pp.45~46)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除籍簿』는 물론 모든 기록에 그의 순국일은 8월 29일 국치일 당일로 일치한다.

58) 宋相燾, 『騎驢隨筆』의 洪範植條.

59) 朴殷植, 『韓國痛史』, 大同編譯局, 1915, p.171(『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되었는데, 그는 이 유서에서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sup>60)</sup> 그는 또한 손자 기문은 어렸으나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읽어보라고 하며 그에게도 유서를 남겼다. 그 내용은 손자 기문에게 입신양명하여 자신의 유한을 달래 달라고 부탁하며, 몇 종형제가 되더라도 돌려서 읽어 보라고 명하였다.<sup>61)</sup> 유서의 글자는 모두 흐려 쓰지 않고 정성을 들여 또박또박 썼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홍범식의 주머니에는 5통의 유서가 있었는데, 일제가 뒤져 가져간 것을 후에 박용태가 일본인에게 사정하여 가족에게 남긴 유서 1통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홍범식의 가족들이 그의 유품 중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니 멸망한 고려 왕조에 충성과 의리를 다하기 위해 은거한 杜門洞 72賢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고 한다. 그의 올곧은 지조를 알 수 있는 일화이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 잡기에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하던지 조선 사람으로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아야 한다. 죽을 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이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sup>62)</sup>

그의 자결 순국 소식이 알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깜짝 놀라며, 홍범식은 나라가 망하자 최초로 순국한 사람이며, 앞으로 그의 뒤를 따라 많은 관리와 신민들이 죽을 것이라고 칭송하였다.<sup>63)</sup> 실제로 그의 뒤를 이어 수십 명의 우국지사들이 자결 순국하였다.

60) 「두 머느리의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양 등당하고 형테화락하야 몸들 무탈하여라 일문화기는 부녀에게 잇스니 생각하고 쥬심하야 죽는 나의 부탁을 잊지 마라 들은즉 큰 머느리는 티중이라 하니 더욱 삼가기 밋는다 나는 오날 당하야 가스를 생각하니 통한흔 곳 잊지 적으랴 디강 곳친다 경술 칠월 이십 습일 식부”.

61) 洪起文, 『故園紀行』(『洪起文朝鮮文化論選集』, p.380).

62)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9, pp.88~89 재인용.

63) 金澤榮, 『洪範植傳』, 『韶濩堂文集』 卷十.

## 5. 자결 순국의 영향

홍범식이 자결 순국하자 일제는 10일이 지난 9월 8일자 『朝鮮總督府官報』의 「彙報」의 官吏死去 부분에 '금산 군수 홍범식이 지난달 30일 사거하였다'라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보도하였다.<sup>64)</sup>

일제는 경술국치에 분개하여 자결한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그 집 사람들 찾아가 절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sup>65)</sup> 그러나 홍범식의 경우, 일제는 그의 순국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그의 자결 원인조차 비열하게 왜곡하였다. 즉, 일제는 그의 순국이 일제의 침략에 분개하여 결행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광증이 발하여' 자살한 것으로 폄하하였던 것이다.<sup>66)</sup>

그러나 그의 자결 순국 소식은 순식간에 국내외로 전해지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新韓民報』는 그의 자결 순국 사실을 「그래도 하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신속하게 미주 동포사회에 보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보도하며 칭송하였다.<sup>67)</sup>

그의 순국은 독립운동 단체나 해외 동포사회에서 8월 29일의 국치일을 맞이하여 독립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기억과 기념의 상징적 소재가 되었다. 상해의 同濟社는 1913년 8월 29일의 국치일을 맞이하여 홍범식 추도회를 개최하였고<sup>68)</sup>, 『新韓民報』 역시 이날을 맞이하여 「대치육 함병 기사」에서 '홍태수의 강개 순국'이 민족정기가 인멸치 않은 증거라고 그의 순국을 기렸다.<sup>69)</sup> 한편 『獨立新聞』은 1922년 8월 29일자 「국치일의 해설」 기사에서 홍범식의 자결 순국을 최초의 순국으로 칭송하였고<sup>70)</sup>, 한국국민당 기관지인

64)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9월 8일자. 일제가 그의 순국 일자를 하루 늦춰 발표한 것은 그의 순국이 경술국치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65)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維新社, 1920, p.29(『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p.109).

66) 『新韓民報』, 1910년 10월 12일자.

67) 『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자.

68) 鄭元澤, 『志山外遊日誌』 1913년 7월 28일자(陽 8. 29).

69) 『新韓民報』, 1913년 8월 29일자.

70) 『獨立新聞』, 1922년 8월 29일자 「國恥日의 解說」.

『韓民』도 1936년의 국치일에 그를 순국열사의 首位에 두고 설명하였다.<sup>71)</sup>

무엇보다도 그의 자결 순국은 그의 아들 홍명희에게 ‘가슴에 큰 못이 박혀’진 것 같은 깊은 충격과 영향을 주어 조선 천하가 모두 倭奴의 수하가 되더라도 홍명희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sup>72)</sup> 홍명희는 어려서 자신에게 엄격하였던 홍범식을 무서워하고 꺼려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73)</sup> 그러나 부친의 죽음은 그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天崩地坼’과 같은 일이었다. 그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말하였다.

“합방만도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나에게 건디기 어려운 크나큰 타격인데 약한 마음을 자애로 어루만져주시고 약한 몸을 자애로 휩싸주던 우리 아버지가 합방 통에 돌아가셨다. 나는 온 세상이 별안간 칠통 속으로 들어간 듯 눈앞이 캄캄하였다. 天崩地坼이란 當故한 사람들 흔히 쓰는 문자가 나에게는 문자 그대로 사실인 듯하였다.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고 또 내 자신이 망하였으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는 것이 가장 상책일 줄 믿으면서도 생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었다. 죽지 못하여 살려고 하니 고향이 싫고 고국이 싫었다. 멀리멀리 하늘 끝까지 방랑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 삼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삼년을 지내는 동안에 곁으로 생활은 전과 같이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지만 속으로 감정은 전과 판판 달라져서 모든 물건이 하치않고 모든 사람이 밉살스럽고 모든 예법이 가소로웠다.”<sup>74)</sup>

홍명희는 부친의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중국과 남양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 7년여를 보내다가 귀국하였다. 그는 부친이 유서에서 당부한대로 친일을 하지 않고 부친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살고자 하였고, 가끔은 아들 기문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생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존심을 지키고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5)</sup> 그는

71) 『韓民』, 1936년 8월 29일자 「流芳百歲의 殉國 諸烈士」.

72) 朴學甫, 「洪命憲論」, 『新世代』 1946년 3월호(통권 제1권 제1호), pp.85~87.

73) 洪命憲, 「自敘傳」(金東煥 편, 『平和와 自由』, 삼천리사, 1932, pp.97~101).

74) 홍명희, 「내가 겪은 합방 당시」, 『서울신문』 1946년 8월 27일자.

75) 洪起文, 「아들로서 본 아버지」, 『朝光』 2권 2호, 1936. 5, pp.181~190.

월복한 후에도 자신의 책상 왼쪽 벽에 부친이 남긴 유서를 액자에 담아 걸어 두었는데, 아침저녁으로 올려다보며 마음을 다잡고 어제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sup>76)</sup> 그는 말년의 어느 날 자식들에게 자신은 『임격정』의 작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라 홍범식의 아들 애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 자신은 일생동안 애국자라는 명예를 잃을 까봐 그 명예에 티끌조차 묻을세라 마음을 쓰며 살아왔다고 말하였다고 한다.<sup>77)</sup>

홍명희는 1919년 3월 19일, 충북 최초의 3·1운동인 괴산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이후에도 신간회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민족운동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홍범식의 이복동생인 洪用植이 홍명희와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홍명희의 이복동생인 洪性憲가 형의 뒤를 이어 괴산 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다.<sup>78)</sup> 홍용식은 조카인 홍명희보다 7년 연하이나, 그와 함께 3월 18일 동부리 자택에서 3백여 명의 태극기를 등사하고 이튿날 괴산 장터로 나가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sup>79)</sup> 한편 그 다음 괴산 장날인 3월 24일의 만세시위의 주역은 홍성희였다. 그는 면서기들과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경찰에 피체되었는데, 이에 분개한 군중들이 경찰서로 쇄도하여 격렬히 항의하였다. 그 또한 1년의 옥고를 치렀다.<sup>80)</sup>

홍범식의 순국 이후 그의 동생인 홍용식과, 그의 아들인 홍명희·홍성희가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족운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곧 그의 부형의 유훈을 따랐기 때문이다. 홍범식이 자결하며 남긴 유서는 그의 손자 홍기문도 신간회 참여 등 민족운동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핏줄이 성한 그날까지는 할

76) 현승걸, 『통일 염원에 대한 일화』, 『통일예술』 창간호, 광주출판사, 1990, p.319.

77) 현승걸, 『통일 염원에 대한 일화』, pp.318~319.

78) 박결순,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pp.109~111.

79) 『홍명희 등 판결문(대정 8년 형 제217호)』, 1919. 4. 17, 공주지방법원 청구지청(『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2, pp.1079~1080).

80) 『홍성희 등 판결문(대정 8년 형 제236호)』, 1919. 4. 17, 공주지방법원 청구지청(『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pp.1081~1082).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것을 맹세하였다.

“... 다시 할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불초한 이 손자가 엎드립니다. 입신양명하여 유한을 위로해 달라는 우리 할아버지께 저는 무슨 면목을 들고 대담히 왔습니까? 저같이 약하고 못한 위인이 어찌서 그 어른의 손자로 태어났습니까? 나이 벌써 서른 넷, 황송한 말씀이오나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올시다. 지난 서른 네 해의 碌碌함을 돌아보아 앞으로 서른 네 해도 제 스스로 큰 기대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시여! 제 몸을 도는 이 피는 어디까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제 핏줄이 성한 그날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앓고자 맹세합니다. 몇 종형제가 되든지 돌려보라고 명하신 유서는 제 아우와 또 제 종제들에게 두고두고 읽히겠습니다. 아니 저희 대, 손자대까지라도 길이 전하여 가보로 삼겠습니다. ...”<sup>81)</sup>

홍범식의 순국으로 인해 민족운동의 길을 걸은 것은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일제는 충북지방 3·1운동 발발 원인의 하나로써, 당시 양반과 유생층을 중심으로 홍범식의 자결 순국을 찬양하는 풍조를 지적한 바 있다. 즉, 홍범식의 자결 순국이 양반과 유생들의 만세시위에 끼친 영향을 주목하였던 것이다.<sup>82)</sup>

그의 자결 순국의 유훈은 후손이라는 혈연적 연고와 충북이라는 공간적 범주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국의 많은 우국지사들이 그의 뒤를 따라 자결로써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였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민족운동에 투신하였다.

秋岡 金祉燮(1884~1928)은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907년 5월 상주보통학교 교원으로 임명<sup>83)</sup>되어 교편을 잡고 있던 그는 1908년 11월 11일 의원면직<sup>84)</sup> 하고 상경하여, 이후 재판소 번역관 시험에 합격하여 1909년 8월 전주구 재판소 번역관보를 거쳐<sup>85)</sup> 이 해 11월 금산재판소 서기로 근무하게

81) 洪起文, 『故園紀行』, 『朝鮮日報』 1936년 4월 13일자.

82)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pp.472~474).

83) 『김지섭 교원 임명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697-000).

84) 『김지섭 상주보통학교 전과부훈도 면직사령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698-002).

되었으며, 물품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sup>86)</sup> 홍범식은 김지섭에게 유서를 맡길 만큼 그를 신뢰하였다. 1913년 김지섭은 공주지방법원 영동지청 서기겸 번역생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단원이 되어 1924년 二重橋 투탄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체된 그는 공판을 받을 때 일본에게 모욕을 당한 것에 분개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생명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답변하였다.<sup>87)</sup> 결국 김지섭의 독립운동 참여는 홍범식의 자결 순국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한 그로부터 유서를 부탁받아 비밀리에 가족에게 전하며 잠자던 민족의식이 각성되고 독립의식이 고양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sup>88)</sup>

홍범식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인물로 미주지역에서 활동한 宋哲(1896~1986)도 주목된다. 당시 전주 신흥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송철은 고향이 금산으로 홍범식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 비분강개하여 살아있는 동안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이후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고 회고한 바 있다.

“... 급기야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을 발표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비보를 전해들은 금산의 홍 군수는 아무도 모르게 군청 소재지 가까운 언덕에 올라 소나무에 명주 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이 순국의 소식은 삼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나도 이 애절한 죽음을 목도하였는데, 비분강개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언덕 밑으로 축 늘어진 시신은 어린 나의 가슴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살아서 무엇 하리! 기필코 살아서 저 원수를 갚으리라는 사무친 결심이 그 어려웠던 학업, 망명, 광복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심이 있었기에 공부에 공부를 매진했고 그 가난의 고학생활동도 불사했던 것이다. ... 홍 군수의 죽음

85) 「김지섭 임명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702-008). 이때 판임관 4품계를 받았다.

86) 「김지섭 8급재판소 번역관 보임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703-001) 및 「금산구 재판소 물품 회계 관리 임명장」(독립기념관 소장자료 1-001702-004).

87) 『朝鮮日報』 1924년 9월 11일자.

88) 金容達, 「秋岡 金社燮의 生涯와 獨立運動」, 『安東史學』 제6집, 2001, pp.135~181.

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sup>89)</sup>

홍범식의 죽음은 동료 군수들에게도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이천 군수로 재임하던 趙鏞夏(1882~1937)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三均主義를 정립한 조소앙의 형이었는데, 그는 같은 군수직에 있던 홍범식의 자결 순국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8개월이 지나 군수직을 사직하였다. 이후 그는 다시 麻田郡(현재, 연천군)의 군수에 임명되었으나, 6개월 만에 사직하고 이후 망명하여 중국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sup>90)</sup> 그는 1933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 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문 : 그렇게 마전군수에 복직하였으나 그 후 大正 2년 8월 퇴관하였는데 그러한가?

답 : 그렇다.

문 : 왜 퇴관하였는가?

답 : 내가 이천 군수로 근무하고 있을 무렵 日韓併합이 되었으나 당시 그것에 분개해서 당시의 전북 금산군수를 하고 있던 홍범식이 자결하였으므로 그러한 사건에 의하여 자극되어 이천 군수를 그만 둔 상황이었는데, ... 당시에는 생활에도 불편을 받고 있는 때이어서 온정에 의지해서 복직하였으나 어쩐지 총독정치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승복하는 기분은 되지 않고 조선 민족을 위해서 금산군수가 自盡한 일을 또 새로이 생각하고 조금도 군수를 계속하고 있을 기분이 되지 않았으며 ...

문 : 군수 시절에 상급 관청의 조치 등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답 : 그러한 일은 없었다.

89) 이상수, 『송철 회고록』, 키스프린팅, 1985, pp.29~30.

90) 「趙鏞夏 聽取書(第一回)」, 1932년 12월 19일, 神戶地方裁判所 檢事局(『韓民族獨立運動史 資料集』 42, 국사편찬위원회, 2000, p.111).

문 : 그렇다면 결국 조선은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무렵부터 생각하고 있었는가?

답 : 구체적으로는 없었으나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sup>91)</sup>

이상으로 볼 때 그의 자결 순국은 동생과 아들, 손자가 독립운동의 길에 전념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지섭과 송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가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조용하의 사례에서 관료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범식의 자결 순국은 일제 강점과 더불어 국내외 동포들에게 항일투쟁의 선구적 존재로서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내내 해마다 경술국치를 기억하고 독립 쟁취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의 대상이 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홍범식의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의열투쟁으로서의 자결 순국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봉건적, 소극적 투쟁이 아닌 것이다. 곧 자결 순국 투쟁은 개인의 극적 희생을 통해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민중의 봉기와 투쟁을 유발한 적극적이고 효율적 투쟁으로 평가하여 마땅하다. 역사가들이 자결 순국자들을 大書 特書하여 立傳케 하여야 한다고 한 박은식의 주장<sup>92)</sup>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 6. 맺음말

본고는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최초로 자결 순국한 금산 군수 홍범식의 생애와 자결 순국 과정, 그의 순국이 한국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노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조부와 부친에 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열

91) 『公判調書』, 1933년 3월 31일, 京城地方法院(『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 p.137).

92) 朴殷植, 『韓國痛史』, 171쪽(『白巖朴殷植全集』 제1권, p.415).

族의 영예를 이어갔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孝悌를 두터이 행하고 志節을 지키기에 힘썼다. 그는 특히 부친 홍승목에게 극진한 효행을 다하였으나, 홍승목이 아들의 자결 순국을 목도하면서도 친일 행각을 벌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범식은 1888년 무자 식년시의 진사시에 급제 후 내부 주사, 혜민원 참서관을 거쳐 1907년 전북 태인 군수에 임명되었다. 당시는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하였고, 특히 전북의 의병 활동이 왕성하였다. 이에 군수로 서임된 사람들이 임지 부임을 기피하여 지방관이 결원이 된 이른바 '曠窾', '窾闕' 현상이 심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비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회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장을 찾아가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설득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였다. 그가 적극적으로 의병을 지원한 근거는 없으나, 군민을 극력 보호하였음은 틀림없다. 또한 그는 荒政이나 수리사업 등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고, 지방관의 가렴주구와 폐정이 없도록 유의하였다.

그가 태인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군민들은 『황성신문』에 그의 선정을 칭송하는 광고를 자발적으로 게시하였다. 그의 명성은 태인은 물론 인근의 고부와 정읍 등지에도 알려졌다. 당시 그를 전북 제일의 군수라거나, 태인군이 생긴 이래 가장 선정을 펼친 군수라고 칭송한 기록은 그의 선정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그의 선정은 금산에서도 계속되었다. 현재 그가 군수를 지낸 태인과 금산에 남아 있는 각종 선정비 등 기념물은 그에 대한 역사적 기념과 기억의 현재적 증좌이다.

그는 1905년 을사오조약을 강제 당한 이후 늘 일제의 침략에 비분강개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1910년의 망국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탄식은 깊어졌고, 망국 직전에는 이미 자결 순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가 유서를 작성한 날자가 경술국치 이틀 전인 8월 27일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는 가족에게 남기는 여러 통의 유서를 쓰고, 객사 벽에도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글을 남긴 뒤 관아 뒤편의 조종산 자락 소나무에 목을 매 자결 순국하였다. 그의 순국 과정은 일제 침략에 분개하여 자결 순국한 열사의 행적 가운데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의 장례는 금산 군민들이 정성을 다해 치렀다.

일제는 홍범식의 자결 순국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하였으나, 곧 이 소식은 국내외로 파급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자결 순국은 국내외 동포의 항일투쟁의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사회와 독립운동 단체가 해마다 국치일을 맞이하여 독립 쟁취의 결의를 다지는 기억과 기념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그의 자결 순국 투쟁은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독립 운동에 나서게 하였다. 그의 동생 홍용식과 아들 홍명희, 홍성희는 물론 손자 홍기문까지 3대가 그의 순국의 영향을 받아 3·1운동과 신간회 주도 등 민족운동에 나섰다. 그들은 홍범식의 유훈을 받들어 친일행위를 하지 않고, 애국자 후예로서의 명예를 지키기에 노력하였다.

그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운동에 나선 것은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3·1운동 당시 충북지역민들은 경술국치 때 순절한 홍범식을 찬양하며 만세운동에 나선 것이었다. 또한 그의 유서를 비밀리에 맡았다가 홍명희에게 전한 김지섭은 그 영향으로 망명, 의열단에 가입하여 이종교 투탄의거를 결행하였고, 그의 자결 모습을 직접 목도한 송철은 복수를 맹세하고 망명하여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같은 군수였던 조용하 역시 그의 자결 순국의 영향을 받아 퇴관을 하고 망명하여 독립투쟁에 나섰다.

요컨대 홍범식의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의열투쟁으로서의 자결 순국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봉건적, 소극적 투쟁이 아닌 것이다. 곧 자결 순국 투쟁은 개인의 극적 희생을 통해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민중의 봉기와 투쟁을 유발한 적극적이고 효율적 투쟁으로 평가하여 마땅하리라 믿는다.

(원고투고일 : 2011. 3. 28,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홍범식, 경술국치, 자결순국, 풍산홍씨, 홍명희, 금산군수, 괴산, 김지섭, 조용하, 송철

<ABSTRACT>

## *Ilwahn Hong Beom-sik's Sacrificing Suicide and the Dying Instructions*

Park, Gul-sun

*Hong Beom-sik*(1871~1910) is the person who was the highest officer as a governor among the suicided people over country's ruination in 1910, as well as who became the ignition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as he killed himself as soon as the Korea-Japan Treaty was proclaimed. Not only for this, his sacrificing suicide is the detailed case of the dying instructions to make many people go to the anti-Japanese struggle, so it can be given the special meaning.

He was noble birth of *Noron*(老論) and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following his father and grandfather to succeed the honor of family. After he passed the exam in 1888, he got an appointment as a governor of *Tae-in*, *Jeonbuk* Province in 1907. At that time, army raised for the justice all over the nation, especially in *Jeonbuk* area. He persuaded Japanese army to suppress them not to kill thoughtlessly so that he could save so many lives. Furthermore he didn't extorted taxes and exerted himself to save his people from bad crop and to do irrigation works.

People in *Tae-in* published an ad to praise his beneficent government at *Hwangseong Daily*. With this, there are remembrance like many monuments for him in *Tae-in* and *Geum-san* where he governed and they are the historical commemoration and the remarkable evidence about him. He already had decided to kill himself for country before the ruination of country. The face that the date he wrote his will was August 27th, two days before the ruination confirms it. He left many letter of will for his

family and hanged himself on a pine tree in *Jojong* mountain behind of the government office.

Japanese Imperialism tried to cover and distort Hong's sacrificing suicide, but this news was spread instantly to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created big sensation. His suicide became not only the ignition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for the compatriot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but also the symbolic existence for remembrance to reaffirm their resolve to achieve independence for abroad compatriot society and independence movement group in every national humiliation day.

His sacrificing suicide influenced many people as well as his family to make them go to independence movement. Three generations of his brother *Hong Yong-sik* and the son *Hong Myeong-hee* with *Hong Seung-hee* as well as grandson *Hong Ki-mun* led the racial movement like 3·1 movement and *Singanhoe* in *Chungbuk* Province after his sacrificing.

It was not only his family who took a lead after his will. During 3.1 movement, the people in *Chungbuk* Province went to participate the national movement praising *Hong Beom-sik* who sacrificed in the National Humiliation. Furthermore, *Kim Ji-Seop*, who had kept his will secretly and carried it to *Hong Myeong-hee*, exiled himself and participated in *Uiyeoldan*(義烈團) to drop a bomb at *Nijubashi* Bridge(二重橋); *Song Cheol*, who had witnessed directly *Hong Beom-sik's* suicide, exiled swearing revenge and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A same governor *Jo Yong-ha* also was affected by Hong's suicide and he resigned from office to go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short, as we can see in *Hong Beom-sik's* case clearly, sacrificing suicide as a noble fight is not just an old-fashioned or passive struggle. Sacrificing suicide deserves to be valued that encouraged national awakening and triggered public revolt and struggle through individual dramatic sacrifice.

Key Words : *Hong Beom-sik*, National Humiliation occurred in the year of *Gyeongsul*(*Gyeongsul-Gukchi*), *Pungsan Hong*, a Governor of *Geumsan*, *Goesan*, *Kim Ji-seop*, *Jo Yong-ha*, *Song Cheol*.